

# ‘엄니, 고맙고 미안해요!’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5·18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두 해 전이다. 우리는 졸업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하기로 했다. “다 같이 무대에 오르자.” 결론은 쉽게 났다. 연극 공연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우리 과(科)에는 연극만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꽤 있었으니 당연한 결정이었다.

주인공을 맡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온 배역은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연출을 맡은 그 친구는 나의 노숙함을 높이 샀을 것이다. 하지만 서운했다. 용모가 이리 준수(?)한데, 내가 아니면 누가 주인공을 맡는단? (물론 키가 좀 아담하다는 약점이야 나도 잘 알고 있던 했지만.)

같은 과의 한 여학생도 여주인공을 맡고 싶어 했다. 팔짱만 끼고 다녀도 캠퍼스에 소문이 짝 나던 시절. 우리는 내놓고 사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두 손을 꼭 잡

고 다닐 정도의 사이였다. 그러나 순전히 내 생각이긴 하지만, 그녀는 무대에서 나와 같이 찍히려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배역은 여주인공이 아니라 평범한 ‘할머니’였다. (물론 그녀도 자신의 미모가 별로 뛰어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겠지만.)

주인공을 포기한(?) 나는 ‘진행’을 맡아 스태프에 이름을 올렸다. 조명이나 음향 같은 거야 전문 지식이 없으니 안 되고, 캠퍼스 강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학생 배우들에게 간식같은 걸 사나르는 게 ‘진행’이 하는 일이었다. 그래도 공연이 다가오면서, 연극 팸플릿에 내 이름이 활자화되어 나온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 연극인 박효선과 이지현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벌써 그런 나이가 된 것인가. 설마 그럴 리야 하면서도, 오랜만에 어떤 일(연극 관련)을 계기로 그간 잊고 있었던 오래전 일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을 보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나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 여학생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일찍 결혼했으니 손주도 보고 행

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연극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 4년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신문사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기차 초년병 시절, 5·18이 일어났다. 항쟁 기간 동안에 같은 과(국문과)에서 동문수학했던 박효선(당시 시민군 홍보부장)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 낮에 계엄군과 맞서던 그가 밤에 잠시 목을 축이기 위해 어느 작은 맥줏집에 들렀다가 취재 중이던 나와 마주친 것이었다.

잠깐의 만남, 그리고 소식이 끊겼다. 이후 수배돼 2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그는 1983년 극단 토박이를 창단해 우리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80년대 말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금희의 오월’ ‘모란꽃’ ‘정실홍실’ 등 이른바 ‘오월 삼부작’을 잇따라 내놓았다. 사회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이었다.

‘금희의 오월’은 1980년 계엄군 진입에 맞서 도청을 사수하다가 숨진 전남대생 이정연 열사의 실화를 여동생 금희의 시각에서 극적으로 되살린 작품이다.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월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 계엄군의 총탄에 맞고 쓰러진 박금희 열사와 이 작품과는 관계가 없다. ‘모란꽃’은 서사극의 형식으로 광

주항쟁 때 시위에 참가했던 여성이 계엄군에게 잡혀가 ‘남파 간첩 모란꽃’이라 자백하도록 강요받는 과정을 개인적 심리 치유의 차원에서 그린 수작이었다. ‘정실홍실’은 5월 항쟁 이후 모진 고문으로 정신병을 앓다 죽어간 김영철 열사의 비극을 다뤘다.

그가 내놓은 연극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의 연극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 번 부끄러움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의 연극은 잊고 싶은 기억을 되살려 내면서 끊임 없이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5월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과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이기도 했으니까. 박효선은 그러나 40대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 그가 간 후 나는 한동안 연극을 잊고 살았다. 5월도 잊고 살았다. 아니 잊고 싶었다.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애꾸눈 광대’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는 우리에게 눈물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웃음 전도사를 자처한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노래와 춤, 마술과 성대모사 등을 선보이며 우리를 웃겼다. 5·18 부상자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지현(68) 씨가 주연공이다. 야구를 좋

아했고 연극을 사랑했던. 그래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는 5·18 당시 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다.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던 자신은 계엄군의 개머리판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고, 남동생은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시위를 하다 연행당하고, 어머니는 실성하고, 여동생은 5·18 유가족에게 시집갔으나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고...

## 전당에서 5월극 상설공연을

처음 그의 자전적 모노드라마로 시작한 애꾸눈 광대는 이후 2인극, 3인극으로 줄곧 진화를 거듭했다. 초연 이후 서울·부산·인천·전주·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공연됐고 2014년에는 일본 오사카 무대에도 오르며 ‘광주의 오월’을 알렸다.

최근 공동 예술극장에서 애꾸눈 광대 ‘엄니, 고맙고 미안해요!’를 관람했다. 작은 소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는데 객석에는 야구 선수 김중모의 얼굴도 눈에 띄었다. 출연진은 그새 10여 명으로 늘어난 것 같다. 초연 당시 아마추어 배우 한 명이 전체 극을 이끌어 좀 어설피기까지 했던 데 비하면, 이번엔 연극으로서의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 광주에도 이렇게 좋

은 배우가 많이 있었구나, 새삼 느낄 정도로 연기력들도 훌륭했다.

‘엄니, 고맙고 미안해요!’는 SNS 등을 통해 시민 공모에 접수된 총 40개의 제목 중 선정된 것이라 했다. 극본과 예술감독은 이지현(예명: 이세상) 씨가, 각색과 연출은 김민호 동산대 교수가 맡았다. ‘애꾸눈 광대’는 지난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해 시작됐으니 벌써 9년째 무대에 올라고 있는 작품이다. 공연 횟수도 어느덧 150회를 넘겼다.

이 씨는 “초창기에는 전담을 팔아서 시작한 후 수많은 난관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좌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광주에 어엿한 문화상품 하나 내놓기 위해 그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꾸준히 한걸음 걷고 있다.

이윽고 막이 내리고. 객석을 떠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본다. 아시아문화전당 콘서트 부속을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작품을 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상설 공연할 수 없는 걸까. ‘애꾸눈 광대’ 뿐만 아니라 박효선의 ‘5월 삼부작’, 그리고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5월의 신부’(황지우 극본) 같은 작품들을 문화전당에서 수시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전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 재도전

신안 지도읍 주민·업체 참여  
현장감사 거쳐 다음달 발표

전남도가 정부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재도전했다. 전국 대표 수산도시를 표방하고도 올해 초 이뤄진 공모에서 탈락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해수부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재도전을 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 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다.

전남도는 신안군 지도읍 봉계리 어촌계 주민들을 비롯한 중자·사료업체 등 8곳이 참여하는 민간 SPC를 꾸려 참여키로 했다. 전남도는 민간 SPC측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일대 부지(8만8976㎡)에 국비와 지방비 등 400억원을 들여 스마트양식 시험단지와 배후



도심속 캔버스 ‘기억을 품고 풍경 그 너머’ 내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도심 속 캔버스로 변모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동하(아들리에 38 건축도시연구소 소장) 건축사의 작품 ‘기억을 품고 풍경 그 너머’를 30일 현장에 설치했다. 작품은 전일빌딩과 금남로 17~47에 자리한 건물 등 거리 풍경을 펜화로 재현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SPC가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시험 단지는 순환여과식 해삼, 새우 양식단지를 2만6268㎡ 규모로 300억원을 들여 조성

하고 배후단지는 100억원을 들여 양식, 가공·유통, 인력양성 기반 등을 조성해 신안군이 운영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초 1차 공모에서 부산시

를 선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선정위원회의 현장심사와 평가를 거쳐 다음달에 2차 공모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해수욕장 7월5일부터 피서객 맞는다

보성 울포 솔밭해수욕장 시작으로 54곳 운영

전남지역 54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5일부터 잇따라 개장, 피서객을 맞는다.

가장 먼저 손님맞이에 들어가는 보성 울포 솔밭 해수욕장은 해수욕장·해수풀장·해안누리길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소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목포 외담도와 여수 안도·만성리·방죽포 해수욕장은 오는 7월 6일부터 여행객들을 맞고, 완도 신지명사십리는 길이 4km에 달하는 광활한 은빛 백사장과 울창한 해송림 등으로 여름이면 많은 여행객이 찾는 전남 대표 해수욕장으로 꼽힌다.

고흥 남열해돋이 해수욕장과 나로우주 해수욕장은 다음달 12일 개장하고 해남 송

호 해수욕장, 무안 홀뜸·툰머리, 신안 우전·대광·하트·시목해수욕장, 진도 관매도 해수욕장 등은 7월 13일부터 손님을 맞는다. 영광 송이도 해수욕장은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23일 간 개장한다.

전남도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휴식과 오락이 공존하는 곳, 전남해수욕장’을 슬로건으로 섬 해수욕장 등을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욕장별로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완도는 해양치유 쿨 콘서트, 보성은 야간 영화상영 버스킹 락페스티벌, 활어잡기 체험행사를, 영광과 진도는 해변 가요제를, 해남은 용왕제 푸른음악회 등을 선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H.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뉘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우동로478-1 : 산수오거리 → 우동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정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담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김정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점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점 매 4억3천

상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인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점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델4층, 2층식당 펜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외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델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큰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2019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이관과정 운영 (주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일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를 활용한 효과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시 접수(인터넛 작성)	2019.06.03(월) ~ 06.19(수)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06.03(월) ~ 06.20(목)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일시	2019.07.03(수) 09: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07.19(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외식산업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